

소리축제 개막공연-국립창극단 신작 '심청'

전주세계소리축제 · 국립극장 공동제작... 제작발표회 · 오디션 개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와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이 공동 제작한 2025 소리축제 개막공연-국립창극단(예술감독 겸 단장 유은선)의 신작 '심청' 제작발표회가 10일 오후 2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렸다.

제작발표회는 이왕준 소리축제 조직위원장과 박인건 국립극장장 등 공동제작 관계자를 비롯해 연출과 극본을 맡은 요나 김, 헤르베르트 무라무어(무대디자이너), 팔크 바우어(의상디자이너), 벤이빈 쿼트케(영상 라이브카메라), 프랑크 쉐발트(무대 의상 어시스턴트) 등 공연 제작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제작에 대한 취지나 작품의 제작 방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소리축제와 국립극장의 이번 공동제작은 2023년 공연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목적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바탕으로 시작됐으며, 이번 작품 '심청'은 그 협력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제작 초반부터 각 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작품 제작을 준비해 왔고, 기획 단계부터 해외 제작진과 협업함으로써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한국 대표 음악극으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심청'은 국립창극단 전 단원을 포함한 130여 명이 출연하는 대작으로, 유럽에서 활발히 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국립극장이 공동 제작한 2025 소리축제 개막공연-국립창극단의 신작 '심청' 제작발표회가 10일 오후 2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렸다.

동 중이며 지난해 국립오페라단 '탄호이저' 연출로 호평을 받은 연출가 요나 김이 극본과 연출을 맡아 첫 판소리 기반 작품에 도전한다.

이왕준 조직위원장은 "2년 가깝게 인큐베이팅을 시작으로 제작발표회가 현실화 돼 감회가 새롭다"며 "공동제작의 형태가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크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작품은 20여 년간 유럽에서의 연출 경험과 한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요나 김

(극본/연출)이 중요한 매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 작품이 국내 공연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작발표회 후에는 배우 공개오디션이 이어졌다. 심청역, 노파심청역, 심봉사역 총 3명을 뽑는 오디션으로 최종 선발된 배우는 국립창극단 단원과 나란히 무대에 오르게 된다.

한편, '심청'은 2025 소리축제 개막공연으로 8월 13~1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동시대 시네아스트 '선 베이커' 감독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선정



매년 다채로운 영화프로그램으로 시네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2025.6.6.~6.8.)가 올해 '동시대 시네아스트'의 주인공으로 선 베이커(Sean Baker) 감독을 선택해 기대감을 더한다.

무주산골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시대 시네아스트'는 전 세계 동시대 영화감독 중 현대 영화 미학의 최전선에서 가장 인상적인 영화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 명을 선정하여 그의 대표작 상영과 영화평론가의 비평을 통해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감독 특집 프로그램이다. 무주산골영화제는 2018년부터 지난 7년간 동시대 월드 시네마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감독들을 국내 영화 관객에게 소개해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올해는 선 베이커 감독을 동시대 시네아스트로 선정하여, 영화제 기간 동안 그의 영화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선 베이커 감독은 극사실적인 연출과 다큐멘터리적 촬영 기법을 담은 2004년작 <테이크 아웃>(2004)으로 평단과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데뷔했다. 이후 불법 이민자, 성인영화 배우, 노인, 흑인, 트랜스젠더와 같이 미국 사회의 마이너 그룹에 속하는 언더독들의 삶을 따뜻하고 사실적으로 조명하며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후 <플로리다 프로젝트>(2017), <레드 로켓>(2021), <아노라>(2024)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최신작 <아노라>는 제78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제9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5관왕을 달성,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감독으로 전 세계 영화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는 내로라할 거장 반열에 오른 선 베이커 감독이 일명 '선 베이커 월드'를 완전히 구축하기까지의 초기작부터 최신작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작 6편을 엄선해 상영한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직훈 프로그래머는 "OTT가 전통적인 영화산업과 극장을 압도하는 시대에서 영화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과 함께 새로운 영화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 예술영화의 최전선에 있는 칸영화제와 대중상업예술영화의 최후의 보루가 된 미국 아카데미가 동시에 인정한 선 베이커 감독은 영화에 대해 고민하는 감독과 관객들에게 유쾌한 영감과 자극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아메리칸 언더독의 세계를 담은 유쾌한 리얼리스트 선 베이커 감독을 다양한 형태로 집중 조명할 수 있는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티켓 예매 일정 공개

오는 30일 개막을 앞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개·폐막식을 포함한 전체 예매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폐막식 예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https://www.jonjufest.kr/>)를 통해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인 전주씨네투어X음악 예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별도 예매 사이트인 멜론 티켓을 통해 이뤄진다.

장애인 관객 대상(휠체어석 포함)으로는 10~17일까지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매를 진행하며, 15인 이상 단체 관람 예매는 온라인 일반 예매 오픈 이후 가능하다.

티켓 가격은 일반 상영 10,000원, 마스터클래스 15,000원, 이벤트 상영·전주특별은 12,000원, 개·폐막식/심야 상영과 영화 <쇼아>는 20,000원, 전주씨네투어X음악은 40,000원이다.

영화제의 모든 티켓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며, 온라인으로 매진되지 않은 잔여석에 한해서만 영화제 기간 중 운영하는 현장 매표소에서도 판매한다.

올해도 전주 시민들의 영화제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매표소를 15~20일까지 운영한다. /정은성 기자

3월 '화제의 책 200선' 발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 달 동안 판매된 도서 순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출판전산망)을 통해 3월 '화제의 책 200선'을 발표했다.

'화제의 책 200선'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및 전국 274개 지역서점에서 제1공한 판매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되었으며,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 순으로 작성되었다.

3월 '화제의 책 200선'을 살펴보면, 참고서 및 학습서를 제외한 10위권에 오른 일반 단행본 도서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유일했다. 그 외에도 양귀자의 '모순', 코이케 류노스케의 '초역 부처의 말',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등이 뒤를 이었다.

2025년 3월 전체 매출액은 1,885억 원으로 전월 대비 28.4%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5.97% 증가했다.

3월 '화제의 책 200선'은 전체 도서 목록 외에도 어린이: 그림책, 활동북, 영유아 학습 분야 도서 목록을 함께 발표했다.

해당 분야의 3월 전체 매출은 43억 원이며,

전월 대비 18.5%, 전년 동월 대비 9.0%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 매출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도서는 영화배우이자 작가인 매튜 맥커너히의 '꼭 그런 건 아니야'였으며, 강효미의 '다판다 편의점'과 백화나의 '해피버쓰데이'가 뒤를 이었다.

출판전산망 관계자는 "신학과와 불교나 아동 도서전 등으로 한층 높아진 어린이 책에 대한 관심이 '화제의 책 200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독자와 도서관, 서점 등이 전산망과 '화제의 책 200선'을 활발히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제의 책 200선'은 매월 10일에 발표되며, 독자에게 인기 판매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서점의 도서 구비, 도서관 수서, 출판사 기획 및 마케팅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는 월말에 발행되는 출판전산망의 '판매데이터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 문화관광 축제포럼' 29~30일 개최

남원시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축제인 춘향제의 100년을 향한 여정 속에서, 오는 29일과 30일, 쉼터리조트 지리산 남원 연회장장에서 '2025 남원 문화관광 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춘향제 100년,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와 축제 관광상품 전략을 주제로, 축제 및 관광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문화자원의 미래가치와 활용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2024년 세계 축제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제 정책, △지역관광 콘텐츠와 전략, △축제 글로벌 변화 전략,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의제가 다뤄진다.

남원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춘향제를 매개로 지역의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관계 인구 유입 전략, 축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 이미지 제고 등 장기적 도시 비전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춘향제의 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축제 기반의 도시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수립이라는 목표 아래 2030년 춘향제 100주년을 향한 전략 구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